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7) (19.9.16)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청산강철 부산 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철강재…(국내) 약세, 수입오퍼 하락보합, 유통가격 약세 지속
(중국) 방향성 불투명 '보합세' 재고 5주 연속 감소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베트남 철강산업 : 특징 및 철강수요 전망(1)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철강사 주가 일제히 급등...성수기 개선 기대감
5. 금주의 자료 : 1)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관계부처 합동), 19. 9. 11)
2) 최근 중국 경제지표와 수출입 동향 (출처 : 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 19. 9. 9)
3) 기업문화 혁신에 필요한 6가지 키워드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19.9. 9)
6. 철강과 인문학(4) : 철의 제국 '히타이트'…전투 방식 변화 · 전쟁 승패 좌우한 철…인류 역사를 만들다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청산강철 부산 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국내 STS 업계의 현재 상황부터 먼저 명확히 평가해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투자 불가결

올해 철강업계 최대 이슈 3가지로 집약된다.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 채권단 관리 중이던 동부제철의 정리, 중국 청산강철의 부산 냉연설비 투자 건을 말한다.

고로 조업정지 건은 우여곡절 끝에 최근 일단락됐다. '민관협의체' 구성과 활동을 통해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 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결론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정개선, 블리더 밸브 운영 등을 보고하는 조건이다.

동부제철 문제는 지난 2일 'KG동부제철'의 출범식으로 일단락됐다. 임원 인사와 조직 재정비, 설비투자 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까지 나왔다.

그러나 동부제철의 미래는 아직 불안하다. 자금 조달과 전기로 매각, 동부인천스틸의 정리 등 과제가 적지 않다. 더욱이 포스코가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3가지 이슈 중 아직까지 미로를 맴돌고 있는 것은 중국 청산강철의 부산 STS냉연공장 투자 건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진입을 반대해왔다. STS냉연이 과잉상태에서 추가로 투자되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노조까지 나서서 반대했다. 그러나 중국산 우회 수출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미국의 무역제재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청산강철과 합작하고 있는 국내의 길산그룹은 기득권 업체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실 왜곡과 과장을 앞세워 해외투자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관심을 갖고 부산시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칫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성장 동력 중의 하나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갖고 FDI 현황 점검과 투자유치 노력을 다짐했다. 특히 '2019년 투자 프로젝트'는 권역별로 동남권에 철강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는 해외 FDI라는 분명한 호재이며, 시의회와 유통가공업체 등의 결단 촉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쉽사리 유치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STS산업과 철강업계 입장에서 몇 가지 사안들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첫 번째 국내 STS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고가격과 적지 않은 수입량의 근본 원인이 국내 STS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시장보호 정책, 또 낮은 내부 생태계 경쟁력 탓이 아닌지 솔직히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 과연 공급과잉을 이유로 신규투자를 막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사실이다. 장치산업의 설비와 기술투자는 경쟁력 확보의 근간이다. 미국 철강산업이 반면교사의 대상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투자 역시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 G2와의 외교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을 명분은 부족하다. 또한 중국산 우회 수출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무엇이 득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TS 상공정은 분명 포스코 독점체제다. 업계 맏형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청산강철 등 해외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보면서 포스코의 현재 위치를 돌아볼 필요성이 커졌다. 과연 독과점의 폐해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한다.

이런 일들을 엄정하게 검토하고 평가 분석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최선의 선택과 구체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스크랩…장기 약세 국면에 주목해야
철광석…급등 반전 (9.1~9.13 평균 92.3달러)
철강재…(국내) 약세, 수입오퍼 하락보합, 유통가격 약세 지속
(중국) 방향성 불투명 '보합세' 재고 5주 연속 감소

◆ 철광석 급등 반전 (9/1~13 평균 92.3달러)

1. 중국 스폿 수입 가격 13일 기준 98.0달러(CFR)

- 전날 대비 10.1%(9달러) 상승....8월 말 대비 15.3%(9달러) 상승
- 8월 6일 97달러로 100달러선 붕괴 이후 29일 81달러로 저점 後 반등세

※ 원료탄(강점결탄) 가격 약보합 기조

- 13일 기준 167,8달러 전주 대비 0.7% 하락....8월말 대비 0.2% 상승

2. 수입 가격 상승 배경 및 관측

- 성수기 시장 개선 기대감 반영
- 중국 조강생산량은 8월부터 다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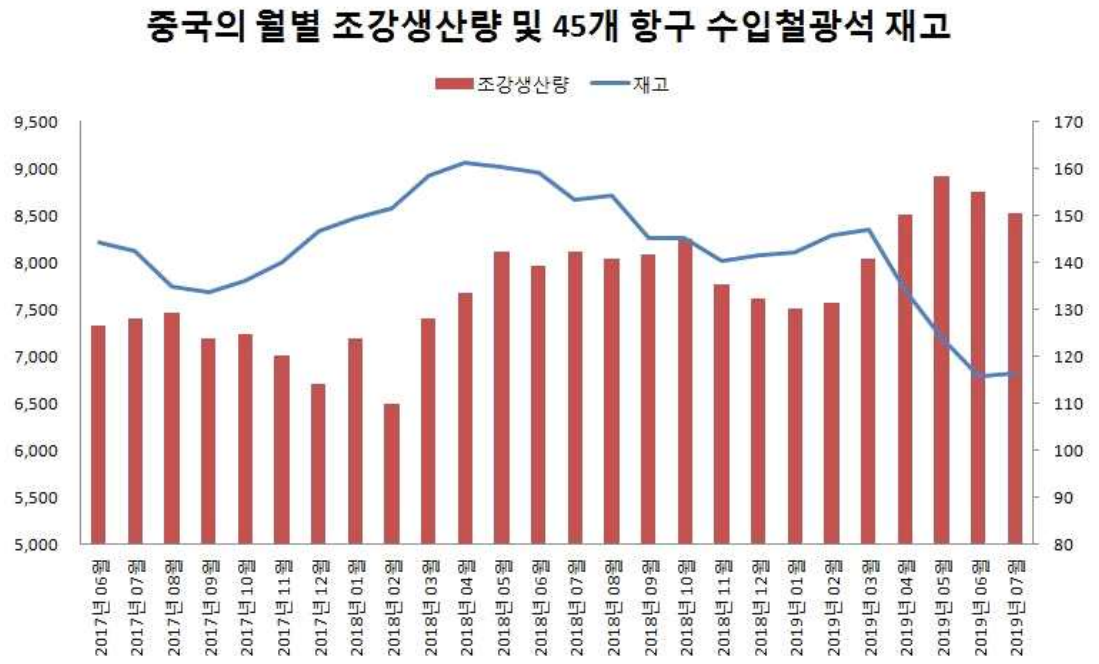
→ CISA 집계 8/1~10일 하루 평균 생산량 205만톤(회원사 기준/전체 생산량 80% 이상)
7월 마지막 10일 대비 5.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3. 9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

-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당산시 감산 9월부터 실시
- 환경 규제 대상 외 지역 철강사들의 증산.

→ 수익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 하지만 철광석 가격 하락 등으로 원가부담 일부 해소
→ 매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과 시장 개선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
→ 10월 말~내년 3월 겨울철 감산을 앞두고 사전 재고 확보를 위한 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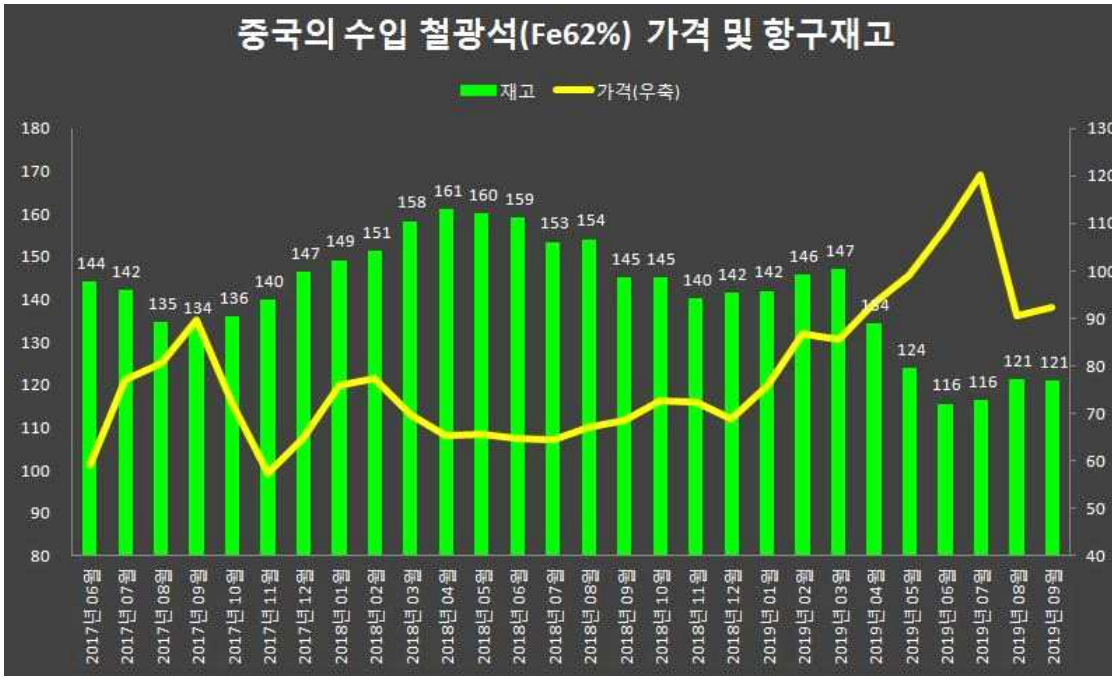
4. 수입 철광석 재고 연중 최저수준 증산기조 속 재고 대량 소진



- 45개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 13일 기준 1억1900만톤
- 6월과 7월 1억1600만톤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
- 작년 9월 1억3400만톤보다 2500만톤 적은 물량

→ 조강생산량 5월8503만톤, 6월 8909만톤, 7월 8753만톤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생산을 기록하면서 철광석 재고를 대량 소진한 것으로 해석.

<표 : 수입 철광석 재고가 급감하면서 수입 가격은 6~7월 급등세를 기록>



◆ 철스크랩 장기 약세 국면에 주목

1. 대형모선 철스크랩 280달러(CFR)대 하락 HMS No.1&2(8:2) 기준
   - 슈니처 둥국제강 계약가격 281달러 3만2000톤
   - 슈니처 현대제철 계약가격 280달러 4만톤 규모
   ※ 터키의 철근 시장 부진 지속, 철스크랩 가격 하락세 배경이 됨.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갈등이 시장 전반을 옥죄는 상황

2. 작년 장기 하락 국면 재연 주목
   - 2018년 10월 360달러(HMS No.1&2)에서 연말 310달러까지 급락
   - 2019년 초 305달러까지 하락
   - 2월부터 상승세를 시작, 3월 말 350달러까지 급등세

※ 반등 가능성

- 연말, 연초 겨울철 재고비축 차원의 수요 증가
- 3월 350달러에서 9월 280달러까지 급락. 기술적 반등 시점 도래한다는 의견

3. 일본 시장의 동력 상실

- 현대제철 9월 첫 주 H2 계약 가격 FOB 2만6000엔. 8월 마지막주 2만7000엔서 추가하락
- 3월 말 3만4000엔에서 6개월째 하락세
- 동경제철은 9월에만 14일까지 5차례(공장별 시점 차등) 인하

※ 일본은 동경올림픽 특수가 상반기로 마무리되면서 수요를 견인할 동력을 상실

- 현재 일본 내수 가격은 H2 2만2000엔~2만4000엔 수준으로 바닥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선행 및 비교 지표인 대형모선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으로 기울고 있음

4. 국내 철스크랩 가격 강세

- 현대제철 동국제강 외 영남지역 중소 철근메이커 국산 매입에 집중
- 추석 전 2주 동안 YK스틸 한국특수형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이 각기 다른 시점에 특별구매 실시로 톤당 1,2만원 인상
- 경량A 기준 시장價 톤당 30만원. 중량A는 33만원
- 현대제철 11일부터 톤당 1만원 가격인하 실시. 영남지역 전기로 메이커도 특별구매 종료로 이전보다 낮아질 전망
- 반면 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1,2차례 다시 오를 것으로 관측

<참고> S&P Global Platts Asia Scrap Heards (13 Sep)

▶ Deals
+ Cont/ US/ 80:20/ $245/ CFR TW/ 3kt (thu)
+ Cont/ Bra/ 80:20 bund/ $255/ CFR JKT/ 1kt (wed)
+ Cont/ Bra/ 80:20 bund/ $265/ CFR JKT/ 2kt (wed)
+ Cont/ UK/ 80:20 bund/ $265/ CFR JKT/ 2kt (wed)
+ Cont/ Bra/ PNS/ $290/ CFR JKT/ 2.5kt (wed)
+ Cont/ Bra/ PNS cut/ $290/ CFR JKT/ 2.5kt (wed)
+ Cont/ UK/ Ovr PNS/ $300/ CFR SUB/ 1kt (tue)
+ Cont/ US/ Bushl. bund/ $287/ CFR SUB/ 1kt (thu)
+ Cont/ UK/ Bushl. bund/ $290/ CFR SUB/ 3kt (wed)
+ Cont/ Eur/ Shred/ $258/ CFR India/ 5kt (thu)
+ Cont/ Eur/ Shred/ $263/ CFR Pakistan/ 2kt (thu)
+ Cont/ UK/ Shred/ $264/ CFR Pakistan/ 1kt (thu)
+ Cont/ UK/ new tinplate/ $270/ CFR SUB/ 0.6kt (thu)

▶ Offers
+ Bulk/ US/ 80:20/ $270/ CFR s.VN
+ Bulk/ Eur/ 70:30/ $270/ CFR s.VN
+ Bulk/ JP/ H1:H2/ $260-265/ CFR TW
+ Cont/ US/ 90:10/ $250/ CFR TW
+ Cont/ US/ 80:20/ $243-245/ CFR TW
+ Cont/ US/ 80:20/ $250/ CFR s.VN
+ Cont/ Can/ 80:20/ $250/ CFR n.VN
+ Cont/ US/ 80:20/ $255/ CFR JKT
+ Cont/ C.Ame/ 80:20/ $242/ CFR Thai
+ Cont/ Chile/ 80:20 bund/ $240/ CFR JKT
+ Cont/ C.Ame/ 60:40/ $250/ CFR Thai
+ Cont/ US/ Shred/ $260/ CFR JKT
+ Cont/ UK/ PNS/ $280/ CFR JKT
+ Cont/ JP/ Bushl/ $295/ CFR JKT
+ Cont/ Germ/ Bushl/ $298/ CFR JKT
+ Cont/ UK/ Bushl/ $295/ CFR JKT

▶ Bids
+ Bulk/ JP/ H1:H2/ $253/ CFR TW
+ Cont/ US/ 80:20/ $240/ CFR TW
+ Cont/ US/ 80:20/ $240/ CFR s.VN
+ Cont/ C.Ame/ 60:40/ $235-240/ CFR Thai
+ Cont/ JP/ Bushl/ $290/ CFR JKT
+ Cont/ UK/ Bush/ $290/ CFR JKT

◆ 국내 철강 시장 (약세 국면)

1. 한국향 오퍼 동향 (CFR 기준)

<판재류>

- 본계강철 9일 기준 : 열연 498달러(보합) PO 523달러(**8월 말 대비** 5달러 하락)
  냉연 528달러(10달러 하락) GI 608달러(5달러 하락) ※달러환율 : 1215.60원
- 산동스틸 : 열연 493달러, PO 523달러, 풀하드 513달러,
  냉연 528달러, GI 593달러(Zn 80. Zero spangle) HR Plate 493달러(16~70mm)
- 연산강철 열연(2.8T base) 486달러 성약
- 일본 동경제철 열연(1.7T base) 510달러
- 대만 샹첸 열연(1.9T base) 505달러

<봉형강류>

- 사강 500달러(10mm)/490(13mm 이상) ※ 500강종 10mm +20달러, 기타 +10달러
- 용강 base 480달러(10mm),
  Size extra: SD400 add USD10/MT (φ10mm)/Grade extra: SD500 add USD20/MT , SD600 add USD30/MT/Length extra: under 8m add USD20/MT/ Shipment: Nov.5th, 2019.)

2. 국내 유통가격 약세 지속

1. 포스코산 수입대응재(GS)

- 열연 : 68만원 *포스코 공급 베이스 63.5만원
- 후판 : 67만원 *포스코 공급 베이스 64.5만원

→ 판매점들의 가격 인상 노력에도 8월 중순 대비 1만원 하락

2. 철근

- 국산 철근 : 66만원
- 일본산 : 63만원/중국산 62.5만원

→ 현대제철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석 이전 1만원 하락

3. 앵글 채널

- 국산 : 76만원 / 수입산 앵글 63만원, 채널 65만원

*앵글 오퍼 가격 : 중국 성차이 기준 앵글 460달러, 채널 468~473달러

4. 형강

- 국산 : 78~78.5만원
- 포스코베트남 : 76~76.5만원
- 바레인 및 일본산 : 74~74.5만원
- 중국산 : 72~72.5만원

→ 가격 급락세 : 현대제철 인상 불구 국산 수입산 모두 2만원 이상 하락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9.13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등락폭	등락율	주기
두바이유	싱가포르(FOB)	현물	USD/bbl	60.89	▲0.77	1.28	일간
액화천연가스	한국 수입가(CIF)	현물	USD/ton	487.67	▲17.21	3.66	월간
전력용 연료탄 (6,300kcal/kg)	호주뉴캐슬(FOB)	현물	USD/ton	62.62	▲3.56	6.03	주간
고철 생철	한국 서울(도매가)	현물	KRW/ton	335,000.00	-	-	월간
철광석 Fines	중국(수입가 CFR)	현물	USD/ton	89.05	▼2.13	-1.25	일간
열연코일 3.0x4x8mm	한국(도매가)	현물	KRW/ton	713,200.00	-	-	월간
제철용 원료탄 Hard	동호주 항구(FOB)	현물	USD/ton	151.43	▲2.34	1.57	일간
전기동	LME	현물	USD/ton	5,870.00	▲27.5	0.47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1,768.00	▼6	-0.34	일간
니켈	LME	현물	USD/ton	17,820.00	▼380	-2.09	일간
아연	LME	현물	USD/ton	2,382.00	▲25	1.06	일간
납	LME	현물	USD/ton	2,094.00	▲8	0.38	일간

◆ 중국 철강 시황 : 방향성 불투명 '보합세' 재고 5주 연속 감소

※ 상해선물거래소 열연 철근 가격 급등

- 내년 1월 인도분 철근 거래 가격 톤당 3549위안, 열연 3568위안
- 전주 마감일(6일) 대비 162위안, 174위안 급등. 전날대비 68위안, 53위안 상승
- 추석 이후 내수 가격 추가 상승 관측

1. 상해 내수 가격 동향 (9.12 기준)

- 열연 3760위안 철근 3720위안. 전주 대비 40위안, 50위안 상승
- 열연-철근 격차 40위안. * 철근 가격이 열연보다 낮은 약세장 추세

2. 수출입 가격

- 중국 오퍼 가격 FOB 기준 열연 485달러 철근 485달러 보합

* 동남아 실재 성약 가격은 450~460달러대로 파악

- 아시아 수입 가격 CFR 기준 열연 470달러 철근 445달러

* 철근은 전주比 10달러 이상 하락

3. 철강유통재고 5주 연속 감소세

- 철근 797만톤(마이스틸 집계기준) 6월 중순 이후 700만톤대 재진입
- 열연 238만톤 선재 163만톤 중후판 104만톤, 냉연 108만톤 감소세 지속

※ LME 비철금속 주요뉴스

美-中 무역전쟁 완화 속 ECB 양적완화 개시

1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한 계획을 2주간 연기한다고 발표함. 이는 중국이 16가지 품목을 대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한 직후에 나온 소식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분위기가 다소 완화됨. 이날 ECB는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재개 카드를 한꺼번에 제시하여 미국의 Fed 금리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구리(Copper) : 12일 3M $5,814레벨에서 급등하며 시작한 Copper는 장 초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위기감이 완화되자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일 대비 2% 상승한 3M $5,898레벨에 고점을 기록함. 그러나, 이후 ECB의 금리 인하 소식이 미달러화의 강세를 야기하여 하락 반전함. Copper는 3M $5,741레벨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저점 매수세가 바닥을 지지하여 $5,860레벨에서 하루를 마감함.

알루미늄(Aluminum) 역시 장 초반의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 완화 속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차익실현 매물과 ECB의 완화 정책이 잠정적인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질 우려로 해석되며 하락 마감함.

금(Gold)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 완화 속에 금 가격은 약세를 유지함. 금은 장 중 한때 온스당 $1,492레벨까지 하회하였으나, 이후 ECB의 금리 인하 및 완화정책이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재차 $1,532레벨까지 상승함.

Market News

인니 대형 제련업체, "니켈광석 수출금지 이른 시행 환영" (Reuters)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아시아 니켈 컨퍼런스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대형 제련업체들은 정부가 수출금지 조치 일정을 앞당긴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 또한 이러한 조치가 자국 내 니켈 가공산업의 발전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 최근, 인니 정부는 니켈광석 수출금지 조치를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것임을 천명하며 시장에 니켈 공급불안 우려 및 가격상승을 야기한 바 있어.

LME의 창고 대기행렬 규정변경, 소비자의 비용증가 유발할 수도 (Reuters)

소식통에 따르면, LME가 실물인수를 위한 창고의 대기행렬 연장을 허용함에 따라, 소비자는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현재의 LME의 창고규정은 첫 30일 (창고비 100% 지불) / 30일~50일(50% 지불) / 50일 이후(면제)이나, 신규 규정 하에서는 첫 80일(100% 지불) / 80일 이후(면제)로 운영될 예정. 이처럼 실물인수 대기행렬 중 창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물인수 프리미엄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견. 신규 규정은 2020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LME 비철금속 OFFCIAL Prices (단위: USD/Metric Tons)

	금일				금월평균		전월평균	
	CASH (현물)		3M (3개월)		CASH	3M	CASH	3M
	BID	ASK	BID	ASK				
Copper	5,842.00	5,842.50	5,870.00	5,875.00	5,721.28	5,748.67	5,707.98	5,733.79
Aluminum	1,773.00	1,774.00	1,808.00	1,809.00	1,754.78	1,783.50	1,740.93	1,771.12
Zinc	2,355.00	2,357.00	2,357.00	2,359.00	2,301.28	2,295.72	2,275.14	2,278.50
Lead	2,084.00	2,086.00	2,088.00	2,089.00	2,058.22	2,057.67	2,043.19	2,041.62
Nickel	18,175.00	18,200.00	18,000.00	18,005.00	17,998.89	17,921.67	15,682.14	15,667.38
Tin	17,440.00	17,460.00	17,400.00	17,450.00	17,154.44	17,142.22	16,577.14	16,566.9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Evening Valuation (종가) (단위: USD/Metric Tons)

	CASH	3MTHS	SEP19	OCT19	NOV19	DEC19	JAN20	FEB20
Copper	5,803.25	5,833.00	5,805.25	5,822.25	5,829.25	5,832.75	5,834.75	5,839.00
Aluminum	1,771.25	1,803.00	1,772.50	1,785.75	1,799.25	1,802.50	1,795.50	1,803.00
Zinc	2,343.00	2,347.00	2,344.00	2,348.00	2,350.00	2,347.50	2,345.00	2,344.00
Lead	2,070.00	2,077.00	2,069.50	2,075.50	2,078.00	2,078.00	2,078.50	2,079.75
Nickel	18,153.00	17,990.00	18,155.00	18,115.00	18,050.00	17,980.00	17,940.00	17,920.00
Tin	17,139.00	17,125.00	17,140.00	17,150.00	17,140.00	17,120.00	17,095.00	17,080.00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LME 비철금속 재고 (단위: Metric Tons)

	금일 재고동향					재고 상세내역		
	전일 재고	입고 (IN)	출고 (OUT)	금일 재고	전일 대비	ON WRT	CXL WRT	CXL Chg
Copper	305,225	50	5,525	299,750	-5,475	228,350	71,400	-5,425
Aluminum	916,000	0	2,375	913,625	-2,375	706,800	206,825	-1,775
Zinc	63,425	0	475	62,950	-475	39,775	23,175	-225
Lead	76,200	0	125	76,075	-125	69,925	6,150	-100
Nickel	156,672	702	954	156,420	-252	77,628	78,792	5,466
Tin	6,955	0	25	6,930	-25	6,385	545	-5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베트남 철강산업 : 특징 및 철강수요 전망(1)

베트남 경제산업 시장개방정책과 FDI로 성장, 제조업 발전 성공적
철강산업 자금 고려, 하공정 이후 일관제철소 건설로 단계적 성장
2017년 소비 2200만톤, 순수입 1300만톤 전체 자급률 50% 내외
2017년 FHS 가동 후 철강산업 판도 급변, HR 생산 크게 늘려

국내 유일의 철강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포스코경영연구원이 9월 8일 아시안스틸워치 제7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철강산업을 특집으로 다뤘다. 본지는 동남아 최대 성장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 철강산업의 특징 및 향후 수요 전망을 번역, 정리해 게재한다.
특히 아시안스틸워치와 함께 지난 5월 말 한국무역협회의 베트남 철강산업 보고서도 함께 참고했다.

◆ 베트남의 경제 성장

2018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7.1%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1분기에도 6.8%를 기록해 국제통화기금(IMF)은 베트남 경제의 급성장 지속을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 가속은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자본축적과 외국의 직접투자(FDI)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세계경제와의 통합도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1995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경제개혁과 산업구조 변화를 추구했다.

2010년 섬유와 의류산업에서 세계 중요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베트남은 화학, 전기, 건설, 자동차, 그리고 철강산업을 선택,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 베트남 경제성장의 특징

베트남의 지난 2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은 정부의 성공적인 시장개방 결과물이다.

급격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베트남의 빠른 변화 동력이다. 베트남은 초기개발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FDI) 유치로 1차 제조업인 의류, 신발 등 생활용품 생산자로 스스로 탈바꿈했다.

나아가 원자재와 부품 수입업자에서 중간 생산자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기술과 경영 전문지식 확보를 통해 제조업의 중공업화로 발전했다. 베트남 경제는 현재 산업화 2단계에서 3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규모 FDI가 유입되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6%를 넘어서는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초기 단계의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의 FDI 중심의 성장 전략 덕분이었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은 충분한 성장잠재력이 되었다.

정치사회적 안정과 개선된 인프라, 동남아 내의 전략적 중요성은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 요인이 되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 일본,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조업 성장을 성공적으로 도모하였다.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세)

◆ 베트남 철강산업의 발전

베트남 철강산업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성장률 10%가 넘는 빠른 확장을 계속해 왔다. 시장개방 경제 도입과 민간 및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2000년대 이후 가속 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베트남 정부는 VSC(Vietnam Steel Corporation) 등 국영 철강사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 허용과 수입 제한 등의 정책을 폈다. 그러나 곧 국영철강사의 개혁과 독자적인 사업능력을 키우도록 독려했다.

일관제철소 건설 자금이 부족한 정부는 우선 판재류 하공정 설비부터 건설을 결정하였으며 그후 일관제철소를 건설키로 하였다. 이 단계적 접근법이 자본축적이 부족한 베트남 철강산업에 적합한 방법이었다.

상공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생산량 확충과 철강기술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먼저 전기로(EAF)를 채택했다.

◆ 베트남 철강산업의 구조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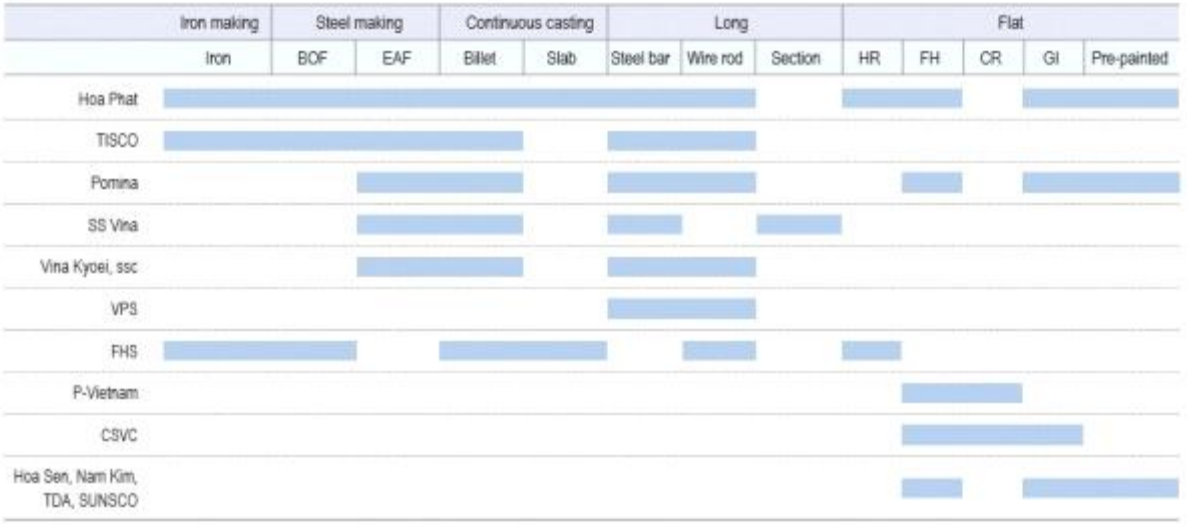
동남아철강협회(SEAISA)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의 최종 철강재 소비는 2200만톤, 순수입은 1300만톤에 달했다.

생산능력이 부족한 베트남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봉형강류가 전체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판재류 자급률은 48%에 불과해 870만톤의 열연강판과 150만톤의 후판 수입이 요구된다.

베트남 철강산업의 구조상 봉형강류와 판재류 생산업체들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포모사하틴스틸(FHS)이 시장에 진출한 2017년 이전 베트남에는 열연강판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가 없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했다.
북부 베트남에서는 봉형강류가 주요 품목으로 호아팟그룹(HPG)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남부에서는 도금과 도장제품이 주를 이루지만 주로 건설용으로 사용된다.
2017년 일관제철소인 FHS가 완공되면서 베트남 철강산업의 판도가 급변했다. FHS는 현재 연간 7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530만톤의 열연강판과 120만톤의 선재 생산능력으로 이뤄진다. FHS의 열연제품은 베트남 철강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봉형강 제조업체들도 판재류 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HPG와 포미나 같은 봉형강류 업체들은 최근 도금과 도장강판 시장에 진입해 판재류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8년 HPG는 연간 60만톤의 냉연강판과 50만톤의 도금강판, 12만톤의 컬러강판 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포미나는 20만톤 냉연강판과 20만톤의 도금, 컬러강판 설비를 건설했다.

Figure 3. Product Structure in the Vietnamese Steel Industry



Source: POSCO Research Institute

(베트남 철강산업 철강재 제품별 생산 구조)

호아센(HSG, Hoa Sen Group)이나 남킴, TDA등의 도금 및 컬러강판 생산업체들 역시 설비 확장에 들어갔다. 특히 북베트남에 기반을 갖고 있는 HPG은 봉형강류 제조업체에서 일관제철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FHS에 이어 열연강판 설비를 건설 중이다.
(추가 기사 : 본지 9월 15일 자, 베트남 철강산업 : 특징 및 철강수요 전망(2), (3) 참고)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철강사 주가 일제히 급등...성수기 개선 기대감
- 동국제강 당진, 국내 최초 KOSHA MS 인증 획득
-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86.1% 최종 가결
- 휴스코, 충남 당진 제 1공장 매각 완료
- 한국철강자원협회, 9월 26일 창립 29회 기념식 개최, KTX천안아산역사 내 CA웨딩컨벤션에서

- 일본주조 열팽창제로합금 3D적층 조형 특허 획득
- 철강사 허리띠 '바짝'..업계 판관비 20% 포스코 40% 급감
- KG동부제철 지분정리 끝...19일 '재상장'

2) 수요/연관 뉴스

- 대우건설 컨소시엄, 5조 규모 나이지리아서 LNG플랜트 수주
- 부산 무역사절단 모스크바, 두바이에서 1300만달러 수출계약...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
- 성동조선해양 4번째 매각 시도…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 포스코건설, 신안산선 착공…총사업비 3조 3465억원, 안산·시흥·광명 거쳐 여의도 연결
- 아우디 쇼트 회장, 세계 신차 시장 2020년도 '험난'
- 삼성重, 2019년 임단협 타결...조선 3사 중 가장 빨라
- 美 포드자동차, '투기' 등급으로 낮춰

3) 경제/산업 뉴스

- 11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191.0원 (전일 대비 ↓2.3원) 원/100엔 1104.72원(↓7.08원)
- 사우디 원유 생산·정제 시설 테러…월요일 유가 '공포'
- 사우디 석유 테러, 알루미늄 등 소재 조달 '그림자'
- IMF,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0.8%p 끌어내려"
- 6월 공작기계 수주 5개월 연속 하락… 일반기계, 전기·전자·IT 업종서 크게 감소
- 내년 수출지원 예산 1조730억원...역대 최대 편성
- 정부, 수출시장 구조 '새판짜기' 본격 추진
- 세계 FDI, 중국 '주춤' · 동남아 '집중'
- 주요 경제지표 (9. 11.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7말	'18말	'19.8말	9.9	9.1	9.11	전일비	18말비
₩/U$	1,070.50	1,115.70	1,211.20	1,193.00	1,193.30	1,191.00	△0.19	6.75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210.50	1,191.60	1,192.20	1,189.80	△0.20	6.72
₩/CNY	163.9	162.79	169.65	167.35	167.98	167.4	△0.35	2.83
₩/Y100	949.28	1,008.86	1,138.99	1,116.00	1,111.80	1,104.72	△0.64	9.5
Y/U$	112.77	110.59	106.34	106.9	107.33	107.81	0.45	△2.51
U$/EUR	1.1927	1.1455	1.1035	1.1023	1.1043	1.1043	0	△3.60
CNY/U$	6.5426	6.8522	7.1539	7.1331	7.1171	7.1127	△0.06	3.8

* '18년 평균 환율: (₩/U$) 1100.6원, (₩/￥100) 992.6원

* '19년 평균 환율('19.1.1~현재): (₩/U$) 1161.0원, (₩/￥100) 1064.7원, 3시 30분 기준

[유가]	'17말	'18말	'19.8말	9.6	9.9	9.1	전일비	18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59.62	59.23	60.12	60.89	1.28%	15.19%
WTI 선물 ($/배럴)	60.42	45.33	55.1	56.52	57.85	57.4	△0.78%	26.63%

* '18년 평균 유가: (Dubai) 69.66$, (WTI 선물) 64.89$

* '19년 평균 유가('19.1.1~현재) (Dubai): 64.20$, (WTI 선물): 57.07$

[주가]	'17말	'18말	'19.8말	9.9	9.1	9.11	전일비	18말비
KOSPI	2,467.49	2,041.04	1,967.79	2,019.55	2,032.08	2,049.20	0.84%	0.40%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744	41,207	37,095	36,671	44,018	44,587	1.29%	-
KOSDAQ	798.42	675.65	610.55	625.77	623.25	630.37	1.14%	△6.70%
외국인순매수 (억원)	1,409	2,730	2,528	1,778	△67	△2,569	3,742	-

* 기간중: '17말('17.1.1~12.31), '18말('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관계부처 합동), 19. 9. 11)

- 9.11(수) 개최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함.

-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보험 3.7조원을 추가로 지원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함.

*. 바로가기 : file:///C:/Users/win10/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KO21UUB2/풀버전-수출시장구조%20혁신%20방안-붙임.pdf

2) 최근 중국 경제지표와 수출입 동향 (출처 : 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 19. 9. 9)

- 최근 중국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리스크 속에서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6.3%를 기록, 연간 성장 목표(6.0~6.5%)에는 부합했지만 분기별로 성장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정책은 물론 6온 정책 등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동향에 주목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별 소비확대 정책과 자유무역시범구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바로가기 : file:///C:/Users/win10/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LK0312OE/TB14.%20최근%20중국%20경제지표와%20수출입%20동향.pdf

3) 기업문화 혁신에 필요한 6가지 키워드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19.9. 9)

-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드는 6가지 레시피 ... 기업문화 우수사례를 엮어 혁신 노하우 공유
- 공통 실행비법 6가지... 피상적 제도 도입보다 총체적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 바로가기 : file:///E:/기사자료(페로%20이후)/기업문화%20혁신을%20위한%206가지%20키워드(대한상의,%2019.9.9).pdf

6. 철강과 인문학(7) : 전투 방식 변화 · 전쟁 승패 좌우한 철…인류 역사를 만들다

히타이트 인들에 의해 철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고 인류 최초의 철기문명이라는 명예를 얻게 된다.

철의 지위는 떨어진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철의 혜택을 입게 된다. 신의 소재(素材)에서 드디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금속, 철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철의 가장 큰 장점, 매력은 '강인함'이다. 그 강인함을 최대한 살린 도구가 바로 무기(武器)다. 생산량이 늘어난 철은 대부분 무기를 만드는데 쓰였다. 히타이트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우수한 철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철제 무기는 기존의 전투 방식과 전술을 변화시켰다.

첫 번째는 '전차'의 개량이다. 히타이트 건국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차'였다. 전차는 중앙아시아에서 기원전 2000년경 처음 등장해 메소포타미아로 전해졌다. 전차 군단이 등장하자 보병은 크게 약화되고 만다. 말이 끄는 전차는 기동력이 뛰어나고 궁수를 여러 명 태울 수 있어 공격력이 뛰어났다. 전차 부대가 보병 부대 주위를 빙빙 돌며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궁수들이 화살을 쏟아 부어 대량 살상이 가능했다. 전차 보유 여부, 과다가 승패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히타이트 인들은 철을 사용하여 기존의 전차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데 성공한다. 더 빠른 전차, 더 많은 궁수(弓手)가 탈 수 있는 전차를 개발해냈다.

구약성서『사사기』4장에 '전차'가 나타난다. 기원전 12세기 가나안 왕 야빈 아래에 있던 지휘관 시스라는 철로 만든 전차 900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나온다. 900대나 되는 전차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상황을 미뤄 보건대 히타이트 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철과 전차를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은 히타이트 인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철로 만든 전차는 구조 대부분이 철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 생산량이 늘었어도 많은 전차를 모두 철로 만들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이고 또 전차 무게를 고려할 때 바퀴 테와 축, 그리고 발판 일부만 철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철제 전차는 당시만 해도 엄청난 혁신이었다. 구조적 강도 향상은 궁수 1~2명을 더 태워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이제 전차가 아니라 철제 전차 보유 여부, 과다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최초의 제국 히타이트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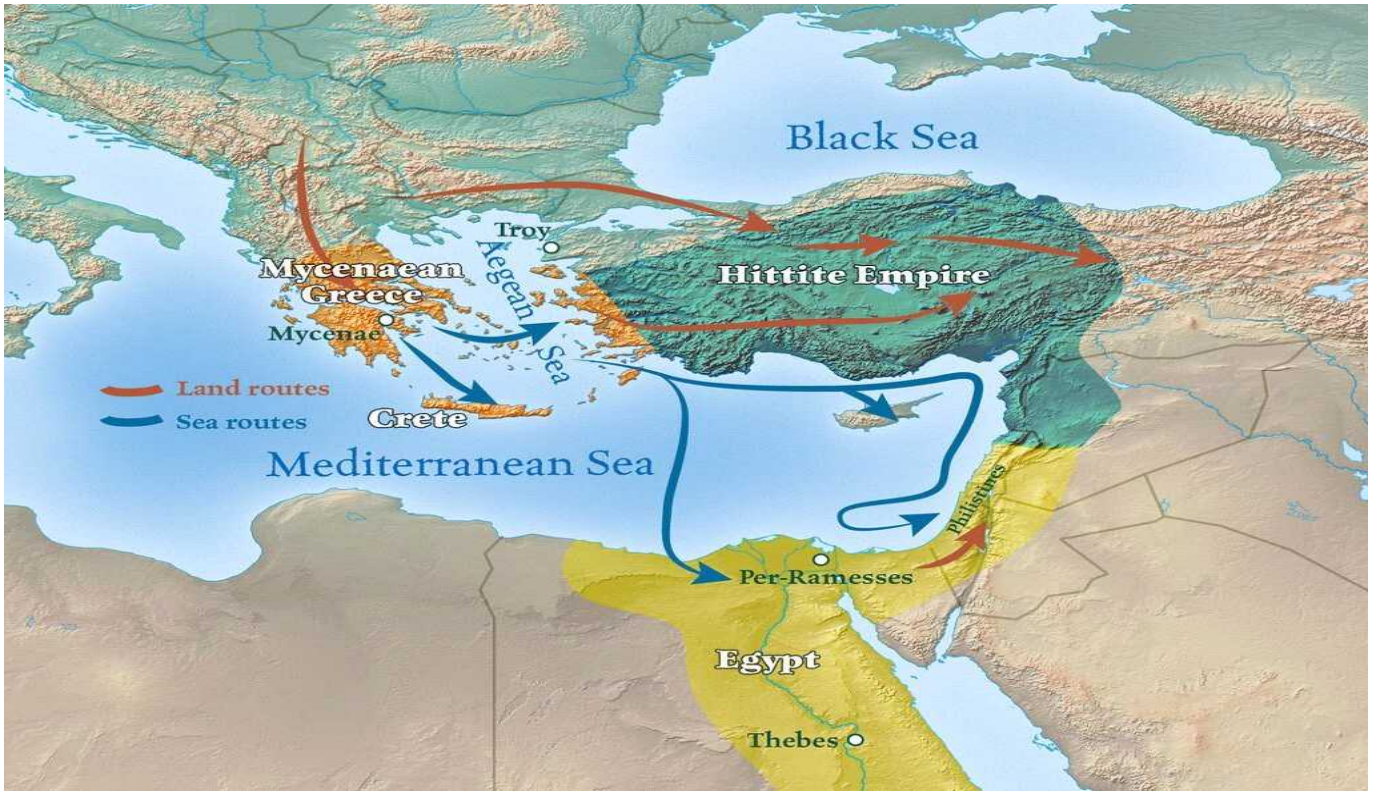
두 번째 변화는 철 생산량이 더욱 늘어나 보병까지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다. 전차군단이 승패를 좌우했지만 아직까지 전차는 소수 권력자들의 독점물이었다. 철제 무기도 이들의 전유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철 생산량이 늘어 철제 무기를 일반 병사들까지, 보병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보병들이 이제 전차와의 전투가 가능해진 것이다. 철 방패로 화살을 막고 근접해 창이나 철검으로 전차 위 병사들을 공격했다. 게다가 일부 보병이 말을 타고 기병이 되자 전차의 위력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철제 전차를 가진 귀족들에게 절대 유리했던 전투가 철제 무기 확산으로 다시 평민 출신 군인들로 중요성이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학자들은 이를 '전투의 민주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철제 무기는 전투의 양상과 방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전쟁은 인류 역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Turning Point)이다. 결국 철이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한 것이다.

히타이트는 이를 입증한 대표적인 국가다. 하지만 서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그들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원전 12세기경 고대 그리스인의 한 계통인 도리아 인이 발칸반도로 남하해 왔다. 도리아 인에게 밀려난 원주민인 프리기아 인이 소아시아 반도로 쳐들어왔고 이들에 의해 기원전 1190년경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가 함락된다. 히타이트는 이후 수백 년 동안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앗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게 완전히 멸망당한다.



철의 제국 히타이트는 멸망했지만 오히려 철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들의 높은 철 생산 기술이 세계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해 철의 영향력 역시 더욱 넓고,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철과 인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